

UN Secretary-General: World threatened by dangerous and unacceptable levels of risk from disasters

유엔 사무 총장 : 재해로부터 수용 할 수 없는 수준의 위기에 처한 세계



The 2015 Global Assessment Report on Disaster Risk Reduction (GAR15) is launched today by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2015 세계 재해경감 평가분석(GAR15)이 반기문 UN사무총장에 의해 발간되었다.

04 March 2015, NEW YORK – 반기문 UN사무총장은 “가중되는 세계의 불평등, 급증하는 자연재해 노출, 급격한 도시화, 에너지 및 자연자원 과소비가 재해위험을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단계로 몰아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UNISDR에서 준비하고 사무총장에 의해 오늘 발간되는 GAR15는 재해로부터의 경제적 손실이 연평균 2500억~300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 결과와 관련해서, 사무총장은 “우리는 위험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위험이 재해경감에 필요한 노력과 자원이 미래 세대의 대처능력을 초과하는 위태로운 정점에 도달할 매우 현실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속가능이 센다이에서 시작하다’라고 선언한 3.14~18 센다이 제3차 UN 재해경감 세계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올해 “세계는 재난위험관리과 장기 지속발전가능한 목표와 기후 변화에 관한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GAR15는 재난위험 관리에 매년 60억달러를 투자하면 향후 15년간 3600억달러의 손실을 방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이 60억달러는 새로운 인프라에 매년 총 예상 지출 6조달러의 0.1%에 달한다고 한다.

“많은 국가는 그런 소규모 추가 투자가 빈곤퇴치, 보건 및 교육 개선, 확고한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성장의 국가적 국제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UNISDR대표 마카렛타 월스트롬은 “2015 세계 재해경감 평가분석보고서는 많은 국가들이 대규모 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섬나라들은 온난화 상승 해수면으로 발생하는 강력한 저기압성 바람과 폭풍해일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오고 있습니다. 미래 손실을 메우기 위해 비축이 필요한 자원은 몇몇 나라의 매년 보건, 교육, 사회보호 지출금액을 초과합니다.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자본투자와 사회적 지출을 하는데 있어, 재난 위험은 많은 국가의 대처능력을 해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들은 지진, 쓰나미, 열대성 저기압과 홍수로 인한 연평균 손실에 대처하기 위해 해마다 3140억달러를 비축해 두어야 하는데, 이는 보건과 교육분야의 빈곤경감 재원을 마련할 기회를 상실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대부분의 정부에서는 빈곤, 기후변화, 보존 생태계의 퇴조, 열악한 도시계획 및 토지 이용, 재난위험 발생의 원인이 되는 건축법규의 부재 등 재난위험의 근원 요인을 다루기보다는 재난을 관리하는데 너무 집중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개발된 새로운 계량식을 통해 1980~2012년 국제적으로 보도된 재해에서 4200만의 인명이 매년 잃고 있다고 산출해 냈으며, 이 수치는 결핵 사망자와 같다.

‘지속가능발전: 재난관리의 미래’ 라는 부제의 GAR15는 재난위험관리의 글로벌 가이드인

효고 행동강령을 채택했던 고베 세계 재해경감회의 이후 10년에 대한 냉철한 재고를 제공한다.

UN회원국들이 자연재해경감을 위한 국제협력 10년을 채택한 이후 25년, 효고행동강령 채택이후 10년 동안, 비록 기후관련 재해로 인해 방글라데시, 쿠바, 인도, 모잠비크에서 사망자가 급격하게 줄었지만, 글로벌 재난위험은 크게 줄지는 않았다.

많은 국가에서, 기후변화가 위험을 키워 재해비용을 늘리고 있다. 예로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열대성 저기압 바람과 관련한 연평균 피해가 2050년에는 14억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AR15는 인도양 쓰나미 이후 2005년 1월에 채택된 효고행동강령을 업데이트하는 새로운 세계 재해경감 합의안을 채택하기로 한 제3차 세계재해경감회의의 중요한 자료이다. 효고행동강령은 재해손실을 줄일 방안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첫 번째 글로벌 합의안이었다.

Date: 4 Mar 2015

Sources: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UNISDR)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 New York UNHQ Liaison Office (UNISDR NY)